

# 말씀의 샘

## 하나님만 섬기는 삶 <여호수아 24장 15~21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상황에서 신명기의 모세도, 가나안 정복사업을 마무리한 여호수아도 한결 같이 걱정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우상을 섬기게 될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가나안에는 도대체 어떤 우상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의 아들이며 남자 신이었습니다. 건강한 남성미가 넘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오른손에 곤봉 또는 철퇴를 쥐고 왼손에는 창날이 달린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전해줍니다. 때때로 바알이 뿔 달린 투구를 쓰고 있으며, 얼굴이 사람일 때도 있지만, 황소 모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농경 사회에서 날씨와 기후를 주관하는 중요한 신인 동시에 다산을 뜻하는 수소를 상징합니다. 또 아세라는 여자인신이며 바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역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며 바알과의 교합을 통해서 풍요, 다산, 그 과정 속에서 쾌락이 생겨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알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남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것이 제사의 일부가 되었고 제사의 마지막은 한없이 타락한 난교 파티로 특징을 이룬 방탕한 다산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요, 다산, 쾌락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포장을 바꿔가며 이어지고 변형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할 당시에는 그 도시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아세라 여신보다 더 발전되어 24개의 가슴을 가진 괴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집착하는 인간의 작품인 것입니다. 풍요, 다산과 쾌락은 시대에 따라 형태와 모습은 다르게 변형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신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때 똑같이 가는 방향이 풍요, 쾌락과 다산입니다. 나를 쾌하게 하는 것과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집약체로서 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mammon의 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해야 합니다. 갈수록 시대는 음란해지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릴 미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풍요 다산 쾌락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하기 보다는 현실에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죄사함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섬기도록하십니다. 십계명 도입부에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중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는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되면 버리고, 현실적으로 도움 안되면 버리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인내의 과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법계를 쳐서 만들라고 했는가? 왜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했는가? 못 만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풍요, 다산, 쾌락을 위한 “너를 위하여 마음에 새긴 우상”을 저마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연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딤후 3:1~5).

**둘째,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31**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32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율무가 되리라 사람은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를 호응하며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소돔 땅에 살던 롯의 두 딸도 나름대로 그들을 깨끗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소알산으로 피신한 다음 친아버지와 근친관계를 통해 자녀들을 출산하는 죄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행합니다. 그들이 소돔의 음란한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그것을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것을 우려하셨기에 가나안 족속들을 썩 다 쫓아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우상은 밀물처럼 우리의 삶으로 지배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극한 우상숭배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려했던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던 부흥의 진원지 평양에서 1938년 장로교단을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국민 의례라고 가볍게 여기고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지금 평양 땅은 전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협은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추석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년은 조상님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가족들 눈치, 예의, 윤리, 문화속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고, 말씀에 비추어보았을 때 찔끔찔끔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살전 5:21** 법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40년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다짐하고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의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 9. 27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5. 10. 4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요한 계시록 3:7~11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믿음은 의리입니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